

직영사찰 해지 · 부원장제 도입 논란

총무분과위 반려 결정... 의원발의로 본회의 상정 여부 관심

3월 임시총회를 앞두고 '소통'과 '화합'을 지향하는 제33대 집행부의 각종 입법안 추진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핵심은 선본사의 직영 해지 및 서울 봉은사·도선사 직영 전환, 부원장제 도입안이다.

조계종 총무원회는 3월 3일 총무원회에서 선본사를 특별분담금 사찰로, 봉은사·도선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안과 총무부원장제를 신설하는 안을 8일 임시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직영사찰은 총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사찰로 총무원장이 당연직 주지를 맡으며, 관리인을 임명한다. 특별분담금 사찰은 재정 상태가 우량한 일반사찰 중 종단 분담금을 특별히 부과 받은 사찰이다. 총무부원장직은 총무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하며 각종 행정적 업무를 분담하게 된다.

위 안건은 그동안 공론화의 과정이 없었던 데다가 이에 당사자가 호불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안전상 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본사가 1994년 종단 개혁 당시 재정투명화 등을 목적으로 직영사찰로 지정된 의미를 들어 총무원 측이 직영 해지를 요구한 것에는 안할



4일 열린 총무분과 회의에서 소속 종회의원 스님들이 총무부가 제출한 상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총무원이 직영사찰로 편입시키겠다는 봉은사와 도선사도 기존 사중 및 문도 스님들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영담 스님은 4일 중앙종회 총무분과회의에서 "선본사는 1994년 개혁 시 여러 문제로 직영사찰로 지정됐다. 제33대 집행부는 은해사 말사인 선본사를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선본사를 직영 해지하고

봉은사·도선사를 직영사찰로 편입시키지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총무분과위원 진화 스님(봉은사 부주지)은 "1994년 개혁 당시 재정 투명 등의 이유로 지정된 큰 의미가 있는데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제출했다. 특히 종회 사무처 의안 접수 마감시한인 3월 2일을 넘겨 제출한 사안"이라며 "특정 사찰을 해지하고, 그 이유로 다시 본사를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무분과 소속 몇몇 스님들도 "선본사는 것바위 돈이 정지권으로 흘러나가는 등 문제로 1994년 개혁의 도화선이 됐던 개혁정신의 상징"이라며 "직영사찰 해지는 종도들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님들은 "총무부원장직 신설도 직책을 하나 새로 만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만큼 종도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토론에도 의견차가 좁

혀지지 않자 영담 스님은 "갑작스럽게 결정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2주 가량 내부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 수렴을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문제들이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상정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결국 투표에 부쳐져 5:4로 반러기로 결정됐다.

이날 반러된 안건에 대해 총무원은 총무분과위원회의 반려 결정과 상관 없이 본회의 의원발의를 통해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회법은 20인 이상의 의원 동시서 안건 상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직영 사찰은 총무원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승인을 얻어 총무원장 스님이 지정하며, 특별분담금 사찰은 총무원회의 의결과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지정된다.

한편, 직영사찰 지정에 관해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스님들은 3일 총무원장 스님을 방문해 직영사찰 편입에 관한 사중의 뜻을 전달했다. 도선사 청담문도회도 4일 긴급문도회를 열고 문도회 입장을 담은 문건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동국대 이사후보 갈등

통도사 "사중 동의없이 후보 추천"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가 관행을 깨고 종책모임 스님 위주로 동국대 이사후보를 선출한 것을 두고 월정사 측 주장에 반론이 제기되고, 통도사는 내용 조정이 어느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국대 前 이사장 영배 스님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월정사 스님들이 종회의 결정 사안을 운운하며 동국대 이사후보 선출에 출자 사찰에 대한 기여도를 요구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월정사 측이 말하는 1990년 2월 21일 개최된 제99회 긴급 비상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학교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종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제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영배 스님은 "이번 종관위에서 통도사 측 이사 지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며 "범해 스님(서울 개운사 주지)과 정호 스님(포교원 포교연구실장)은 통도사 재적 스님이 맞다"고 설명했다.

영배 스님의 해명처럼 '두 이사 후보 스님이 통도사 재적 스님'임에도 통도사는 내용 조정이 일고 있다. 이사 후보에 올라 선출을 기대했

던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종관위 회의가 열렸던 2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다 동대 이사 후보 선출에서 낙마했다는 소식에 통도사로 돌아갔다.

이후 통도사 측은 정우 스님을 중심으로 "통도사 측 지분으로 상정된 후보 스님들이 주지는 물론 방장 스님과도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동국대 이사 후보가 각 계파의 안배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기회에 동국대 이사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한 종회의원 스님은 "동국대가 더 큰 발전을 하려면 과거의 공적을 대를 잇는 방식이 아닌 이사회 선출과 함께 학교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가 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계파를 우선한 동국대 이사 후보 선출을 비롯한 선본사, 봉은사, 도선사의 직영사찰 해지·편입 논란, 총무원 부원장제 개설 시비 등 총무원·중앙종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논란들이 계파간 연대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동섭 기자

자승 스님 당선무효 피소

호법부 "종단법 따라 대응"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취임 석 달을 넘긴 때, 전복 한 사찰 주지 스님이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3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진안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조계종을 상대로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2일 제기했다.

금당사 주지 성호 스님은 소장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1992년 실시된 중앙종회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승적을 변조했다. 또 동화사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해 현재까지 이를 이력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자승 스님의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성호 스님은 초심호계원에 정계가 허부 중인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금당사 관계자는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 당시 자승 스님의 승적 변경의 내용을 담은 과문서를 전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4일 진행된 과문서 용의자에 대한 초심호계원 심리심판은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관계자는 "성호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을 사회법에 제소하는 것은 종단 법규에 따라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이번 안과 관련해 호계원에 추가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의 승적위조와 관련해서는 2009년 9월 각신 스님이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문제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같은 해 10월 대한불교조계종정법수호재가회가 자승 스님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정지가처분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조사 착수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해인사 고불암 경매 및 골프장 건립 등 해인사 현안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광)는 3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8차 회의를 열고, 초격 스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오·자현·영관·현조 스님을 소위원으로 하는 해인사 조사 소위 구성을 결의했다. 회의에는 위원장 법광 스님을 비롯해, 종호·태진·태관·조격·의연·재현·수연 스님 등 8명이 참석했다. 호법분과위원회 스님들은 동일 안건으로 상정된 조계사와 관음사 문제는 소관이 아니라는 의견을 모았다. 소위 명칭은 미정으로 봉축일까지 3개월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주민들 위해 골프장 관둬라"

해인사 골프장 반대위 총무원 협조요청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조성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기·사진, 이하 가야산골프장반대위)가 3월 3일 총무원 사회부를 찾아 해인사 골프장 설치 반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남 합천 덕곡리 주민들로 구성된 가야산골프장반대위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을 만나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가야산골프장반대위는 사회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

야산 주변 1500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로 선정된 곳에서 특산물의 연 매출이 150여 원이다. 공사가 진행되면 주민들 생활은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해인사 골프장은 2003년 법의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립공원과 문화재 전통사찰인 해인사에 골프장 설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었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자인 (주)백운이 골프장 추진을 강행하는 중이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불허될 수 있도록 대법원 판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자연공원 내 낚골시설 적법

금선사, 종로구청 상대로 대법원서 승소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 낚골시설 설치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계종 금선사(주지 법인)는 3월 5일 "사찰 내 낚골시설 설치와 관련해 종로구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선사는 2006년 종로구청에 낚골당 건립 허가 신청을 냈지만 구청 측은 "사찰 낚골당 설치하는 자연공원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사찰 내 낚골당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연공원 내 허용되는 행위인 '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해당하고', '자연공원의 경관을 해치거나 보존

·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김형남 변호사(신아법무법인 운영대표)는 "판결을 통해 확인된 법원의 입장은 전통사찰에서의 기존 건물을 이용한 낚골당 설치가 우리 전통의 장례풍습에 부합하며, 불교 전래의 화장문화가 자연공원 내외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북한산 등 자연공원에 위치한 전통사찰 내 낚골당을 종교시설로 보아 법원이 인정된 것"이라 말했다.

한편, 1심 법원도 대법원과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조동섭 기자

제79차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결과에 대한 제4교구 본·말사 주지의 입장

2월 25일 열린 제79차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말사 주지일동은 동국대학교의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하여 해당 사찰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사직을 배정하였던 지금까지의 불문율이 깨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문율은 중앙종회 본회의에서도 논의되어 본회의의 의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1990년 2월 21일 개최된 제99회 긴급 비상 중앙종회 본회의에서는 동국대학교 이사 및 감사 선출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면서 동국대학교 설립에 기여도가 큰 출자 사찰에 대한 이사직 배정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출자의 많고 적음이지 동국대학교 설립에 출자하지 않은 사찰이 없기에 배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과 설립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사직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토론 되었습니**다. 중앙종회 의장스님께서 동국대학교 이사 선출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동국대학교 이사 선출은 출자 사찰 전체를 예우할 수 없지만, 출자가 많은 월정사와 통도사, 백양사는 예우하여야하기에 각 사찰의 스님을 이사직에 배정하여 선출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의를 보면 통도사의 경우에는 통도사 소속 스님들로 선출이 이루어졌으나, 동국대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출연한 사찰인 월정사는 월정사와 아무 연관도 없는 선각스님(해인사 주지)과 종호스님(쌍계사 중앙종회의원)이 정념스님의 후임 이사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특히 동국학원 이사 후보로 복수 선출된 네 분의 스님 모두 특정 종책모임 소속이라 하니, 이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선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내걸고 힘차게 출범한 제33대 총무원이 한국불교의 도약과 흥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안팎으로 도와야 할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합리적인 이유와 대중적 동의 없이 기존의 합의와 불문율이 무너지는 것은 교계언론에서도 종단 내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단 발전과 흥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말사 주지일동은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출자 사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후임 동국학원 이사 후보를 재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단의 화합과 중앙종회에서 인정된 이사 선출의 불문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각스님과 종호스님께서는 이사 후보를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도 호소합니다. 금번 회의 결과대로 본회의에 안건 상정 요청이 있으면, 제99회 중앙종회 본회의의 의결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을 반려 내지 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